

대구 주보

연중 제21주일 2017. 8. 27.(가해) 제2067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18-19)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이사 22,19-23

제2독서 로마 11,33-36

복음 마태 16,13-20.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요즘 연예인들이 즐겨하는 자신의 인기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자신의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질문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데, **“너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에 오면 사제나 수도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한마디씩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문**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고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2015년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종께서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프란치스코 교종의 뜻에 따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선포해 왔습니다. 삼위일체 신앙고백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방식이자 피조물의 존재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세상은 삼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238항). 인간은 자신에서 벗어나 하느님, 이웃,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고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집니다(240항). 그리고 교종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의 본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는 역할을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67항).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고,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84항).

그러나 현실은 하느님을 찬미해야 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

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를 반복하는 소비지향 생활습관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어가는 환경파괴의 첫 번째 피해자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경제의 의미와 경제목표를 고찰하여 그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194항).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가난한 이들을 옹호하며 존중과 형제애의 관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201항).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훼손된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가닿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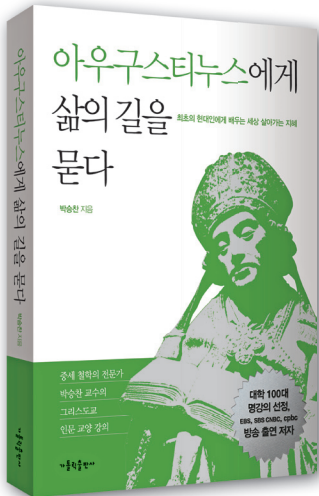
교종께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한 시간 성체조배의 방식으로 거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성체 앞에서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파괴된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2017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 최초의 현대인에게 배우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 -

가톨릭출판사



박승찬 지음 |
344면 | 17,000원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하여 왜 죄를 짓고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불행이 왜 계속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과연 올지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답을 구해 보려고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한 걸로 쉽지 않다. 그런데 1,600년 전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답을 찾고자 절실히 노력했던 인물이 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354년~430년)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교회 내 많은 학자들은 물론, 근·현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자 위대한 철학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릴 때 부모님 속을 썩였고, 신분이 낮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10여 년 넘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그야말로 문제아 중 문제아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극적인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풀어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사상가이면서도 다양한 욕망에 휩쓸리기도 했던 보통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 삶의 의문과 고민들에 대해 답한 책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이다. 2012년 대학 100대 명강의에 선정된 바 있는 이 책의 저자 박승찬 교수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하기에 누구나 쉽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저자가 직접 들은 질문에 대해 준 내용도 실려 있어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갖게 되는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사상가이면서도 다양한 욕망에 휩쓸리기도 했던 보통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 삶의 의문과 고민들에 대해 답한 책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이다. 2012년 대학 100대 명강의에 선정된 바 있는 이 책의 저자 박승찬 교수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하기에 누구나 쉽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저자가 직접 들은 질문에 대해 준 내용도 실려 있어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갖게 되는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된 문제들이기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특히 온갖 욕망과 유혹에 빠져보았던 그였기에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며 듣게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평생을 걸쳐 고민하고 통찰하여 얻은 답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영원한 삶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통해 사람을 당신께 부르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요한 16,28)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행위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대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2코린 5,10) 이로써 하느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정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든다는 것은 지복직관(至福直觀), 곧 하느님을 뵈는 행

복을 누리는 것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한 이들이 언제나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은총과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죽었지만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 복락에 들어가고자 거치는 정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선과 대사 보속을 통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느님과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선택한 이들이 겪는 것으로,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하느님께서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며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모든 인간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대로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번 호를 끝으로 <가톨릭교회 교리> 연재를 마치고 다음 호부터는 듣긴 들었는데 무엇인지 잘 몰랐던,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가 애매했던 <천주교 용어>에 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8.26(토) _ 평신도위원회, 평단협 상임위원 성지순례 참석 (전주 나바위성지)

교구 및 기관 행사

8. 27(일) _ 고아성당 봉헌식 (15시)

8. 31(목) _ 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1주차 교육 (9시 30분, 대봉성당)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 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에어컨 사용시간을 줄이고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겠습니다.”



미 사 안 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8일(월) 10:30 범어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9월 2일(토) 10:00 프란치스코눔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9월 2일(토) 11:00 성모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월미사	9월 3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오순절평화마을 후원회미사	8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	-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성경학교 2학기 개강

개강: 9.7 매주 목 10:00

장소: 2대리구청 1층 강의실

강사: 성바오로딸수도회

비용: 한 학기 6만원(교재비 별도)

신청: 743-7010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9.3(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9.2(토) 10:00

주제: 착한의견의 모후

내용: 찬양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문의: 진량성당, 856-7676

교육 | 모집 | 기타

말씀과 삶 안으로 한걸음 더 깊이

개강: 9.4 매주 월 10:00 / 19:30

장소: 베네딕도성경학교(사수동 800)

내용: 구약말기의 성경문헌들(심화과정)

대상: 성경 기초과정을 공부하신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출을 통한 몸의 기도(8회기)

기간: 9.5~10.31 매주 화 10:00~12:00

장소: 바들로교육센터(수성구 파동)

주제: 몸의 움직임을 통한 기도와 치유

신청: (010)3360-9817 문자 신청

말씀으로 마음 치유(독서치료)

일자: 9월부터 10주간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30~50대 남녀 / 참가비: 12만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오카리나, 가곡성가, 성

가반주·오르간·클래식기타하모니카성가, 발

성법, 왕초보관광영어, 사범자격과정꽃

이, 제대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 2급1급, 수

지침, 초급영어민영여 / 신청: 254-6115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양업고 신입생 모집

아시아 최초로 좋은학교 인증을 받아

전인 교육을 하는 하느님 사랑의 학교

기간: 9.11(월)~26(화)

문의: (043)260-5076 / 5078

<http://yangeob.hs.kr>

2018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11(월)~29(금)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 3023

<http://ipsi.csj.ac.kr>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4차)

일시: 9.27(수)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www.theopen-daegu.co.kr **관절·출처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노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전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진동 학회장 역임
 대구 강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 전문병원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개원 42주년 **확장이전**
백두병원
 SINCE 1975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31일(목)은
(故) 최영수(요한) 대주교
선종 8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8.31(목) 기도 13:00 미사 14:00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관덕정 순교자현양후원회원의날 미사

일시: 9.2(토) 17:00
주례: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관덕정 영성 특강: 9.2(토) 16:00
강사: 공한영 고스마 신부(안동교구)
문의: 관덕정, 254-0151

반야월성당 사랑의 대바자회

기간: 9.23(토)~24(일) 10:00~20:00
장소: 반야월성당
바자회물품: 제수용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소고기 사전 주문예약)
문의: 반야월성당, 962-0021

2018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9.9(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21(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교육 | 모임

제3기 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11.7(화)~16(목)
장소: 필리핀(사랑의 선교회)
회비: 9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발달장애인 주일학교 개학

일자: 9.9(토), 성토마스성당
대상: 유아, 초·중·고, 성인
문의: 476-6124 / (010)2802-5919

2017 소람 상담사목교육 하반기 모집

내용: 상담심리 기초, 가족관계학,
상담심리실습, 성격심리학
신청비: 과목당 5만원
문의: 소람상담소, 250-3100

JPIC 캠프 모집

기간: 10.7(토)~8(일)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제목: DO YOU KNOW 치맥?
대상: 교구 내 청년 / 참가비: 1인 4만원
문의: 대구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2017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영성신학, 그리스도론, 교리교수법, 신
구약성경, 신약성경입문, 교회법과영
성생활, 구약인물들의기도주해, 성서
와경제, 성지성화성경 / 개강: 9.5(화)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앞산밀북카페 상영영화

첫째주: 스웨덴 영화 10선
둘째주: 교황청선정 영화 10선
셋째주: 그리스도교 2000년
넷째주: NGC 코스모스
일시: 매주 월 14:00 / 문의: 622-1900

채용 | 안내

가창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대상: PC, 엑셀 능통한 자
마감: 9.10(일)
신청: 가창성당, 768-8942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 안내 (FM 93.1MHz)

행복한 세상 931 월-금 11:00~12:00	그대에게 평화를 1부 월-금 14:00~15:00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라 월-금 17:05~17:50	대구 평화 음악실 월-금 18:05~19:00
가톨릭 뉴스 월-토 17:00~17:05	신앙 특강 토-일 14:00~15:00
행복한 신앙생활 토 17:05~17:50	본당 순례_우리 본당요요 토 18:05~19:00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윤경재단
시지노인전문병원
신경계 재활전문 노인병원
원목 수녀님께서 상주합니다.
곽 동 환 (마르코)
☎053-812-1212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참조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두산약국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